

## 중환자실에서 결혼한 부부에게 찾아온 기적

중환자실에서 결혼식을 올린 남자가 기적처럼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다.

심근경색으로 이탈리아 토리노의 몰리네테 병원에 입원한 마우리시오(47)는 최근 병세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로부터 심장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이란 말을 듣고 장기이식 대기자 명단에 등록했지만 언제 기증자가 나타날지 알 수 없었다.



▲ 마우리시오와 실비아가 중환자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사진=wantedinrome.com

리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자 병원은 흔쾌히 허락했다.

간호사들은 침대 주변에 풍선을 달아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다. 비록 웨딩드레스를 입진 못했지만 신부 실비아는 한송이 꽃을 손에 들고 마우리시오를 신랑으로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결혼을 위해 중환자실까지 '출장' 나간 판사는 두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고 법정혼인예식을 절차대로 진행했다.

마우리시오는 살아서 병원을 나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로 했다.

먼저 결혼식부터 올리기로 했다. 그는 결혼식을 올린 못했지만 함께 살고 있는 여성 실비아가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입원 보름 전 예쁜 딸까지 태어났다. 마우리시오가 사정을 얘기하고 "중환자실에서 결혼식을 올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날 저녁 부부에게 심장 기증자가 나왔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심장이식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실비아는 "심장 기증자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비명을 지를 만큼 기뻐했다"며 "남편이 재활을 잘 마치길 바랄 뿐 더 이상 소원은 없다"고 말했다.

## 길에서 공부하던 소녀에게 전액 장학금



햇볕이 내려쬐는 길에서 공부하던 5살 소녀가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니게 됐다.

페루 밀림 오지 출신인 곤살레스와 딸 마리아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시로 나왔다. 하지만 아버지는 일자리를 쉽게 찾지 못했다.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일이 길에서 자동차 앞유리를 닦아주는 일이었다. 그는 트루히요의 한 소규모 주변에서 매일 오전 7시부터 신호에 걸린 자동차를 닦아주고 운전자가 주는 대로 팁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마리아는 길거리로 출근하는 아버지와 함께 매일 집을 나선다. 이미 지난해 유치원에 들어갔어야 할 나이지만 돈이 없어 유치원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하지만 마리아 공부가 하고 싶다는 책을 들고 매일 아침 아버지를 따라나서 길에서 주운 플라스틱 의자와 작은 테이블을 놓고 공부를 했다. 아버지는 종이박스를 뜯어 딸에게 그늘막을 만들어줬다.

부녀의 사연은 누군가 "길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을 SNS에 공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트루히요의 장학재단과 에르마노스 블랑코스 사학재단이 부녀를 찾아나선 건 이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였다. 마리아는 이들의 지원으로 고등학교까지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게 됐다.

마리아는 "열심히 공부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곤살레스는 "최선을 다해 딸의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울먹였다.

사진=trome.pe

## 총격으로 부모 잃은 2살 아기에게 쏟아진 온정

지난 4일 시카고 교외도시 하일랜드파크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도중 발생한 총기참사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2살 아기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6일 CBS방송에 따르면 이리나 콜론은 전날 모금사이트 '고펀드미'에 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에이든 맥카시(2) 돕기 모금 페이지를 개설했다. 그는 "고작 두 살인 에이든은 부모 없이 자라야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에이든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지원 시스템 속에서 보호받겠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모금 페이지를 열었다"며 기부를 독려했다.

그러자 미국 각지에서 에이든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에이든. 사진=wicnews.com

전해졌다. 7일 기준 5만 2,500여 명이 284만 5,830달러를 기부했다. 목표 금액 50만 달러의 5배가 훌쩍 넘는 금액이다.

기부자들은 "에이든이 영원히 사랑과 행복에 둘러싸여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모두 에이든과 함께 한다",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에이든이 알았으면 한다"며 응원과 위로의 댓글을 남겼다.

에이든의 부모 케빈 맥카시(37)와 아이리나 맥카시(35)는 22세 백인 남성 로버트 크리모 3세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에이든은 아버지가 온몸으로 감싸 안아 보호한 덕에 목숨을 건졌다. 에이든은 현재 조부모가 보호하고 있다.

# 척추 디스크 통증에서 완전해방!!

풍부한 경험의 척추전문 의사와 최첨단 의료기가 만났습니다

30년간 척추디스크 및 좌골신경통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윤동준 척추신경병원에서는, 21세기가 낳은 혁신적인 최첨단 무중력 압력감소 치료기 DRX9000을 갖추고 90% 이상의 현저히 높은 완치율로 고통없는 치료방법으로 다양한 척추디스크 질환을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머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 디스크 (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굳거나 빠진 통증/아깨가 안돌아가는 증상 (Frozen Shoulder) / 오십견/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생 때 조기 검진중요)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 (엉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 / 요통 / 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 / Tennis Elbow / 손목 / 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 신경통 (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 / 발목통증 / 변증상



척추디스크 치료 30년 이상의 임상경험 최첨단 척추디스크 치료기가 함께 해 최고의 결과를 자부합니다!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교통사고 및 각종 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목-허리 디스크 탈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만성요통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UC Irvine  
LA 척추신경의대  
CA 척추신경보도 전문의  
CA 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0년



윤동준 척추신경병원 714.539.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 CA 92840